



골든글로브 연기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의 연극 '라스트 세션' 연습 장면. /파크컴퍼니 제공

58년 연기 내공 이번엔 연극 무대

지난 8일 오후 서울 대학로 한 극장.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로 분한 원로배우 오영수가 무대 중앙의 책상에 홀로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영국의 중대 발표에 관한 내용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곧이어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유명한 영문학자 루이스(전박찬 분)가 찾아온다.

영국이 독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2차 대전에 돌입한 1939년 9월 3일. 런던에 망명해있던 지크문트 프로이트가 자신을 찾아온 C.S. 루이스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대화의 주제는 '신의 존재'다. 무신론자인 프로이트와 유신론자인 루이스. 둘의 대화는 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오영수 '라스트 세션' 무신론자 '프로이트' 연기 친구와 더블캐스팅... '일남' 모습 오버랩 인상적

에 없다. 두 사람의 논쟁은 한 치의 양보 없이 90분간 뜨겁게 이어진다.

지난 7일 대학로 티오엠(TOM) 1관에서 개막한 연극 '라스트 세션'은 정신분석학의 대가 프로이트(1856~1939)와 루이스(1898~1963)의 대담을 그린 2인극이다.

미국 극작가 마크 제메인이 허버드 대학 정신과 교수인 아맨드 M. 니콜라의 저서 '루이스 vs 프로이트'에서 영감을 받아 쓴 작품이다. 신의 존재에서 출발한 두 사람의 논

쟁은 종교, 삶과 죽음, 사랑, 유머 등에 관한 대화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의 삶과 인간에 대한 주제로 확장된다.

주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무대에 집중하다 보면 극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무대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은 오영수와 초연에 출연했던 원로배우 친구가 '프로이트' 역으로, 이상윤과 전박찬이 '루이스' 역으로 출연한다. /연합뉴스

오영수는 8일 첫 무대에서 58년 연기 내공으로 논리와 유틸, 재치로 중무장한 프로이트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유의 말끝을 길게 빼는 대사 처리는 '오징어 게임'에서의 '일남'과 오버랩되며 웃음을 자아낸다.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배우들의 열연에 기립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달 '라스트 세션' 기자회견회에서 "연극은 삶의 목적이자 의미"라며 연극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던 오영수는 이번 수상 직후 연합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도 "지금은 연극 무대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연극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공연은 3월 6일까지. /연합뉴스

“여성 액션영화...박소담 아우라 대단”

영화 '특송' 연출 박대민 감독 “장르적 쾌감 줄 것”

“여성 액션 영화에 꽃혀서 기획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살리즈 시어런의 ‘매드맥스’ 같은 영화요.”

12일 개봉하는 ‘특송’을 연출한 박대민 감독은 최근 화상 인터뷰에서 영화를 구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송’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드라이버 은하(박소담 분)가 예기치 못한 추격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사실상 원톱 주연으로 나선 박소담은 카 체이싱을 비롯해 몸싸움 장면까지 다양한 액션을 보여준다.

박 감독은 시나리오를 완성하자마자 박소담에게 이를 전달했다. 그 이유는 박소담이 가진 “아우라가 대단했기 때문”이라고.

“어떤 역할을 해도 멋진 거라고 확신했

어요. 특히 ‘국가대표 2’에서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분했는데, 진짜 국가대표에 차출된 선수처럼 역을 소화했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역이든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하는 경필(송새벽) 일당에게 쫓기는 서원을 차에 태운 뒤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된다. 출중한 운전 실력으로 자신을 추격해오는 여러 대의 차량을 단박에 따돌린다.

박 감독은 “속도감에 가장 포인트를 맞췄는데, 속도감은 계속 달리는 데서만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변화를 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극장가에서 흥행 중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경관의 피’의 기세가 무섭다면서도 “‘특송’ 만이 가진 장르적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그룹 엔하이픈 /빌리프랩 제공

엔하이픈 '디멘션 : 앤서' 발표

각 잡힌 칼군무 핵심

데뷔 1년 만에 '밀리언 셀러' 기록을 세우며 차세대 K팝을 이끌거라 주역으로 떠오른 그룹 엔하이픈이 지난 10일 컴백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디멘션 : 앤서'(DIMENSION : ANSWER)는 정규 1집의 리패키지 앨범이다.

앨범에는 정규 1집에 수록된 8곡에 '블레스드-커스트'(Blessed-Cursed), '폴라로이드 러브'(Polaroid Love), '아웃트로 : 데이 2'(Outro : Day 2) 등 3곡을 추가했다.

타이틀 '블레스드-커스트'는 합함을 기반으로 강한 리듬감에 맞춰 일곱 멤버가 각 잡힌 듯한 안무를 선보이는 '칼군

무'가 핵심이다. 희승은 "정규 1집의 타이틀곡이었던 '태임드-대시드'(Tamed-Dashed)가 청량한 매력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강렬하고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퍼포먼스에 집중했다고 소개했다.

안무에 집중하다 보니 하루 7~8시간 연습하기도 했다고 멤버들은 전했다.

정원은 "방탄소년단(BTS) 선배님들이 칼군무로 유명한데 많이 참고했다. 우리도 칼군무 퍼포먼스로 인정받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제이는 "엔하이픈의 모습이 제대로 담긴 역대급 퍼포먼스라는 점을 자부한다"며 "K팝 그룹 가운데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그룹이라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태진아 “트로트는 나의 동반자...목숨 같죠”

“지난 해 못했던 50주년 콘서트 꼭 했으면”

최애곡은 '옥경이' '겨울도 안 보는 여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다시 50년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 없으면 꿈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열심히 도전하려 합니다.”

가수 인생 두 번째 반세기를 열어젖힌 가수 태진아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트로트를 두고 '동반자'라고 했다. 그의 히트곡 제목이기도 하다.

태진아는 “트로트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노래이고, 정서 그 자체”라며 “트로트는 나에게 동반자다. 내 목숨과 같은 정도로 소중한 장르”라고 강조했다.

각종 상을 약 220만개량 품에 안았다는 그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를 물어보니 '옥경이'와 '겨울도 안 보는 여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태진아는 “'겨울도 안 보는 여자'는 순

위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하게 해준 노래”라면서도 “내 최고의 노래를 꼽자면 그래도 '옥경이'도 빠지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에는 '진진자라'가 중독적인 멜로디 때문에 이른바 '수능 금지곡'으로 10대를 사이에서까지 유명세를 치렀고, 2014년 한류스타 비와 '라 송'(LA SONG)으로 호흡을 맞춘 무대도 화제를 모았다.

'진진자라'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사실 당시 (유형했던) 메르스가 여서 종식되다, 떠나가라는 마음으로 부른 것”이라며 “우연하게도 노래가 나오고 10일쯤 지나니 나가 사태가 종식됐다”며 웃었다.

7년 전 메르스는 무사히 넘겼지만 벌써 만 2년을 짝 채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지난해 데뷔 50년째를 기념하는 전국투어도 계획했지만 결국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매년 선배 송대관과 꾸미는 '라이벌 콘서트'도 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태진아는 “올해 개인적인 바람은 여서 코로나19가 종식돼 송대관 선배랑 라이벌 콘서트도 하고 지난해 못했던 50주년 콘서트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마이크를 잡은 반세기 동안 트로트라는 장르는 부침을 반복한 끝에 화려하게 '부활'에 성공했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등의 흥행을 발판 삼아 젊은 트로트 스타가 대거 등장했다.

태진아는 “임영웅이나 정동원 같은 어린 친구들이 트로트를 불러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대견하다. 내가 트로트를 하기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뿌듯해했다. /연합뉴스



가수 태진아 /연합뉴스

“저의 70대는 50대·60대와 똑같이 '오늘만 같은 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태진아라는 가수가 참 열심히 노력한 가수로 기억되고 '동네 슈퍼마켓 주인' 같은 편안한 가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워너원 '뷰티풀 파트 3' 27일 발매

지난해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를 통해 3년 만에 재결합했던 그룹 워너원이 음원을 발표한다.

11일 스윙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워너원은 오는 27일 음원사이트를 통해 멤버 11명 모두가 참여한 싱글 '뷰티풀 파트 3'(Beautiful Part 3)를 발표한다.

워너원 측은 “MAMA 무대 이후 '뷰티풀 파트 3'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팬들이 보내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고자 정식 음원 발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명했다. 이번 음원에는 MAMA 무대에 불참했던 라이관린의 목소리도 함께 담겼다. 라이관린이 최근 중국에서 녹음을 마치면서 11명 완전체로 음원을 완성하게 됐다.

워너원 측 관계자는 “음원 발매는 워너원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던 2019년 1월 27일 콘서트 이후 정확히 3년만”이라며 “워너원과 팬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행복하게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12일 (음력 12월 10일)



48년생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60년생 정상이 눈앞에 있다. 72년생 가까운 사이에는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 84년생 나의 고민거리가 해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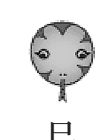
52년생 무심한 말 한 마디가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64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76년생 오히려 시비가 생긴다. 88년생 때로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44년생 내 주머니 속 동전만 내 것이다. 56년생 투자하기에 적절한 날이다. 68년생 몸은 힘들지만 보람은 있다. 80년생 방향을 끝내고 결정할 시기다.



49년생 타인의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라. 61년생 정당한 내 몫을 당당히 주장하라. 73년생 뭐니 뭐니 해도 배우자가 최고다. 85년생 인정을 받는 날이다.



41년생 귀찮고 골치 아픈 일이 있겠다. 53년생 세상에 되는 일이 없다. 65년생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때다. 77년생 인연이라고 느낀다면 놓치지 말라.



45년생 크게 다들 일이 있다. 57년생 모든 해결책은 책 속에 있다. 69년생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친구를 만난다. 81년생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길하다.



50년생 외출을 삼가고 휴식을 취하라. 62년생 골키퍼가 있어도 들어갈 골은 들어간다. 74년생 꺼져진 불도 다시 보자. 86년생 쉽고 배고픈 힘든 날이다.



42년생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 54년생 타인을 비방하여 시비에 휘말린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잘 된다. 78년생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46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 58년생 외출을 삼가고 휴식을 취하라. 70년생 직장에서 승승장구한다. 82년생 이성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51년생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더 낫다. 63년생 불청객이 찾아오는 날이다. 75년생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87년생 고지가 눈앞에 있다.



43년생 지출만 많은 실속 없는 날이다. 55년생 큰 뜻을 품고 미래를 향해 간다. 67년생 전원이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 79년생 하는 일 없이 바쁘다.



47년생 모처럼 하루가 즐겁고 편안하다. 59년생 야망을 가지고 추진하라. 71년생 권력과 재력을 함께 휘두른다. 83년생 호랑이 등에 날개가 달렸다.